



가득

## 지구온난화, 그 대안은 소농

김종일 사도요한

농부, 전 노동사목 사무국장

- 
-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아닐까. 그리고 축산을 비롯한 모든 농사가 지구온난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산 지 12년이 되다 보니, 남에게 훈수를 둘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어도 농사에 관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12년 전에 나는 노동사목 활동가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귀농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았다.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소농(小農)’.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자연양계’였다. ‘자연양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준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줄 것. 둘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이를 가능한 많이 줄 것. 셋째,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를 유지할 것.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가 덧붙인 기준이 있는데, 다른 아닌 ‘농부의 확고한 철학 내지는 신념’이 그것이다. 사실 농산물이라는 게 겉으로만 봐서는 그것이 유기농으로 지은 농산물인지 아니면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한 일반 농산물인지 알 길이 없다.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보증은 오로지 농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그것을 믿는 소비자 간의 철저한 신뢰에 근거한다.

농부의 입장에서 몸이 힘들고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지 않을 땐 신념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때 농부의 마음을 다잡도록 해주는 것은 소비자의 지지와 격려다.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에 가격이 싼 것을 선호한다. 게다가 요즘 시대는 음식을 무한으로 먹어치워 소비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먹을거리의 무한공급을 추구하고 이는 곧 소농들이 설 자리를 점점 없어지게 만들고 만다. 이를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농법은 산업화된 대규모 농산물 생산 단지인데, 아시다시피 산업화된 대규모 농산물 생산 단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소비와 소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지지와 격려뿐이라고!** 🌱



✝ 이달의 기도 지향 : 공동의 집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정의롭게 헤어질 결심

이영주 스텔라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처음에는 ‘오염’으로 시작했다. 산업자본주의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니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하기 시작했다. ‘자연 보호’라는 문구 아래 쓰레기를 줍고 산에 나무를 심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다 국지적인 오염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 섬뜩한 현상이 참 완곡하게 표현되었다. 발음도 부드럽고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더구나 따뜻하다는 말(‘온난 溫暖’)은 그다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곧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제는 기후비상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것.

처음에는 동물을 내세웠다. ‘북극곰을 살리자’는 문구와 함께 뽕송뽕송한 북극곰이 (때론 아기곰과 함께) 얼음 위에서 서 있는 그림. 사실 환경문제는 특정한 종(種)의 문제만은 아닌데, 마치 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동물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뻔했다. 2018년 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을 겪고 나니 이견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등장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물은 낮은 곳부터 차올랐다.’<sup>2)</sup>

처음에는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플라스틱보다는 친환경 제품을,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면서 아끼고, 나누고, 받아서, 다시 쓰면 되는 줄 알았다. 그것도 부족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성장, 녹색경영에서 말하듯 지금처럼 살면서 소비방식만 좀 바꾸려 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원인을 찾아야 했고 결국 우리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미, 1972년 로마클럽<sup>3)</sup>은 “성장의 한계”에서 지금 같은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인류는 100년 후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같은 생산, 소비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구가 1.5개 또는 2개는 더 있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 쓰고 소유하려는 욕망. 그렇게 사는 것이 ‘성장’이라고 믿었다. 한계 없는 물질만능주의가 ‘성장’

1) 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를 두고 기후위기 전복비상행동에서 만든 문구.

2) 2022년 8월 8일 폭우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방에서 숨진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사용된 문구. 주거권 문제로 다뤄지기도 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소외계층이 더 입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3) 1970년 세계 각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민간연구단체. 천연자원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인 인구증가, 핵무기 개발에 따르는 인간사회의 파괴 등 인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됨. (출처: ‘환경교육포털’, 2023. 03. 12 검색)

<https://www.keep.go.kr/portal/145?action=read&action-value=fb49518d5c404ae4508900840fb5ff76>

에 대한 환상과 맹신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지구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환상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그것도 정의롭게 헤어져야 한다. 기후 위기를 초래하면서 자연자원을 착취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보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면 그곳 노동자들의 생계도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

교회도 목소리를 내었다. 1971년 교종 바오로 6세는 교서 「팔십주년」에서 물질적인 성장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참된 진보와 발전은 공동선, 사회적 연대, 자신을 이웃과 하느님께 열어 줄 수 있는 윤리관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41항 참조). 1990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sup>4)</sup>에서 생태계의 위기는 도덕적 위기의 결과라고 하며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2015년 반포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 환경 문제를 정치, 경제, 사상, 영성,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지어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생태교육과 영성’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초대한다.

또 다른 의미의 회개이다. “떠들썩한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실재 앞에서 차분히 머무르는 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쾌락을 삼가고 복음적 검소함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한다(222항 참조). 그리하여 그릇된 생산소비방식, 특히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쳐 기업이 환경 영향과 생산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자고 촉구한다.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입니다.”(206항)

“피조물과 평온한 조화를 되찾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이상에 대해 성찰하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를 바라보자(225항 참조).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공을 쫓는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그리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찬미받으소서 주님! 🌿



4) ‘생태계의 위기: 공동 책임-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1990)

# 일제 강제 동원, 일본은 왜 사죄하지 않는가?

김창현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이 열렸다”고 환호했다. 기획자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미국은 4월 국빈 방문을 선물로 내놨다.

## 잇을 수 없는 군함도, 사도광산, 우키시마호 폭침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을 우리는 의사라고, 일본은 테러리스트라고 한다. 위안부들도 우리는 성노예임을 강조하지만 일본은 매춘이라고 주장하며 인정도 사과도 안 한다. 현재의 일들도 나름의 정치적 신념과 역사적 관점이 있는 것으로 설블리 화해할 수 없다. 일본은 강제징용이 벌어진 하시마 미쓰비시 재벌탄광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해 기리겠다. 사도광산에서도 1200명이 강제노역했다. 일본은 1938년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국민 징용령을 내렸다. 마을마다 할당을 준 사실상의 강제징용으로 648만 명을 국내 동원, 150만 명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 16~22세의 젊은이들이 임금을 강제 저축당하고 하루 15~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일 심각한 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1945년 8월 24일 강제 징용자들을 태우고 출항한 배가 폭발해 8000명이 수장됐다. 강제로 태워진 계획된 폭침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 강박처럼 이어지는 약육강식의 친일 논리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지원재단을 만들어 일본이 기금을 출연하는 야합이 이뤄졌다. 미국은 환영했고 이듬해 한반도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 합의를 끌어냈다.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고 문재인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 10억 엔을 돌려주자 일본은 소녀상을 테러하고 반도체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혐한 감정을 쏟아냈다. 양국의 싸움에 보수 태극기 부대들은 친일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약하니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완용의 논리는 강박처럼 이어지고 있다. ‘조선과 불합리한 일을 벌인 적이 없고 근대화로 잘 살게 해줬다’는 일본에 나라를 판 이들은 제국주의 침략을 뒷받침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근거로 삼았다. 이것이 민족 허무주의와 강대

국 밑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정학적 어려움과 사대주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두 개의 정부로 전쟁 발발. 미군의 영구주둔과 일본의 부활

해방 이후 패전국 일본 대신에 남북이 분단됐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정부를 만든다는 건 전쟁을 의미했고 1950년 전면전이 시작됐다.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고 주한미군이 영구주둔하게 됐다. 미국과 남한은 미합중국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는 권리를 가지는 무기한 불평등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맺었다. 한국전쟁과 함께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 설치를 인정하고 전범 기업을 가동시켜 전략 기지로 만들어 군사적 경제적 부활을 부추겼다. 이후 미일은 남북이 함께 나가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세력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뒤틀린 역사의 결정판. 1961년 들어선 5.16쿠데타 세력은 친미 반공을 원하는 미국의 이해와 맞았고 독립군을 잡던 박정희는 대통령이 돼 한일협정을 강행했다. 미국은 빨리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밀어붙였고 반성이나 사과 없이, 불과 3년간 일본 지배를 당한 나라들의 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적은 돈을 받고 끝났다.(한국 일제강점기 35년)

### 중국 고립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현실화된 일본의 재무장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등 전 세계 패권이 무너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49년 세계 최대강국을 목표로 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를 밀고 있다. 중국 패권의 시작인 셈. 이에 미국은 중국의 고립화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 밑으로 한국을 배치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든다는 것으로 미일과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퀴드로 일대일로를 깨고 한일을 지소미아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

방위력에 있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빠르게 방위비를 늘리며 침략 본성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북 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걸 도와주겠다. 양국의 결탁 역사는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갖기로 한 가쓰라 태프트 밀약부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일협정, 지소미아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 지옥문을 열어젖힌 현 정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때

일본 제국주의 야욕을 역사가 입증하는데도 현 정부는 △신냉전 동참 미국 주도 한미동맹 강화 △북 주적 명시 선제 타격 △유사시 일본군 동원 △중국 포위 전략 등 위험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고 한국 해군이 관함식에서 옥일기에 경례를 했다. 올 2월에는 3국 이지스함어 동해에서 동시 훈련도 했다. 또 올 3.1절 기념사에서는 일제에 대한 규탄 없이 한미일 협력만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건 실력 양성이다. 조선이 당한 건 실력이 없어서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면 싸워야 한다. 북핵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다. 2018년 북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고 개성공단 금강산을 무조건 열테니 합의를 지키라고 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자 북은 믿을 수 없다며 무장에 나섰다. 미일 없이는 못산다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함부로 용서해서도 안 된다. 🌿



2023년 3월 13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숯

정부원 사도요한 신부 복산성당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원고 마감 날이 가까워 급하게 chat GPT(AI)에게 글을 써달라고 해보았다. 원하는 답은 제대로 얻지 못했다. 추상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우리 삶도 그냥 맡기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누구는 머리에 숯을 바르고 돌아가신 분들의 조문을 간다. 그들은 잠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재를 바르기만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알려주는 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가?

우리는 재를 머리에 얹으며 사순시기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성찰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처럼 온갖 미신행위를 맹신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숯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재와 숯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재는 불에 타고 남는 가루로서, 담금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온으로 소성되어 부피가 작고 무겁다. 숯은 공기의 공급을 차단 또는 아주 적게 하여 목재를 가열하였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이다. 숯을 만들 때 공기가 계속 유입된다 태워 재가 되어 없어져 버려 쓸모가 없게 된다.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생각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열정을 불태워야 하지 않는가.

숯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간장을 띄울 때 숯을 넣고,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 둔다. 물의 정화, 공기정화, 습도조절, 노화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숯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숯을 토양에 넣는 것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삭감되고, 농지에서 토양 개량에 효과가 좋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큰 사건으로 인해 생태를 오염시킬까 두렵다.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한다. 핵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는 그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고 수송·추출·폐기하기까지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기계의 고장이나 사람의 실수로 기계를 오작동하거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은 대안 에너지로 지구를 지켜야 한다. 🌿



#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십자가에 못 박힌 땅(The Crucified Land) 1939

알렉산더 호그(Alexander Hogue) 캔버스에 유화, 152×107cm,  
길크리스 박물관(Gilcrease Museum), 털사, 미국.

고은영 베로니카 미술품 복원가

“하느님께 속한 땅에 대한 책임은 지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법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찬미받으소서 68항)”

우리는 이 균형이 ‘존중’받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힌 땅”은 1930년대 미국이 겪은 ‘더스트 볼(Dust Bowl)’이라는 인간의 무모함이 가져온 결과를 아프게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꿈’이 개척과 개발을 딛고 이루어지던 시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던 중남부의 따뜻하고 푸른 초지는 1860년대 연방 소유 토지를 저렴하게 불하하는 ‘자영농지법’의 제정 후 대규모 경작지로 변해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상승은 대평원을 뿌리째 뽑고, 농민들은 앞다퉈 새로 유입된 작물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붉은 살이 드러난 땅은 습기를 품지 못하고 가뭄이 건기로 이어지자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양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래폭풍, 더스트 볼이 1930년대 중서부를 휩쓸자 이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살던 2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1932년부터 작가는 그가 살던 고향의 황폐화를 목격하며 파괴적인 농업 관행을 질타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침식”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이 그림은 인간의 도

구인 트랙터가 대지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지속적 실수에 대한 통렬한 비난’으로 평가받았지만 직관적 표현이 주류를 이룬 상업적 현대 미술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미래를 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 이변으로 1930년 같은 가뭄과 모래폭풍 가능성은 두 배 이상 높고 이미 상승한 기온으로 가뭄 기간은 더 길 것이라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파괴될 때 또 다른 생명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겪었던 과오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



## 자연은 차별할 줄 모릅니다 : 암브로시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으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 협약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산업화를 통해 선진화된 나라들과 이제 막 개발의 달콤함을 맛보는 국가들 사이에 ‘손실과 보상’이라는 이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었습니다.

지구의 기후문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유블리부터 먼저 따지는 어른들에 맞서 15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시위는 자신만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툰베리와 뜻을 같이하는 세계 곳곳의 청소년들과 환경단체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위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지구촌’에서 지구는 이제 ‘우리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후기 로마시대의 가난과 자선의 문제와 꼭 닮아 있습니다. 지구가 잘 사는 나라만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재물 역시 부자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즉,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공동의 자산’임을 잘 알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해서 ‘자선’의 개

념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즉 암브로시우스에게 ‘자선’은 부자가 가난한 이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빛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뭇이야기』De Nabuthae historia를 통해 들려준 암브로시우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소명을 가지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 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자들이여, 그대들의 미친 탐욕을 어디까지 뻗치렵니까? 왜 자연을 그대들만의 소유라고 내세웁니까? 땅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함께 사용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 부자들은 그대들만의 권리라고 사칭합니까? 자연은 모든 인간을 가난하게 낳은 까닭에 부자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옷도 걸치지 않고, 금과 은도 지니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이 땅은 우리를 벌거숭이로 낳으며, 음식과 옷과 마실 것이 필요한 존재로 낳습니다. 땅은 우리를 벌거숭이로 낳았듯이 벌거숭이로 맞아들입니다. ... 자연은 우리가 언제 나고 언제 죽든지 차별할 줄 모릅니다.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창조하고,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무덤의 품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뭇이야기』 1,2. 🌿**



## 한국 천주교회,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다섯 번째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였다.

### [청원의 취지]

우리나라는 현재 33개 법률이 140여 가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까지 총 902명의 사형집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국가가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살인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44%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1975년 당시 3.09%, 2003년 1.73%) 또한, 재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25년이 넘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였습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가장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3월 13일, 아세미(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는 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둘러싸고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왜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김창현 인제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역사임에도 인식의 차이는 큼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근현대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

3월 1일(수/15:00)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본대사관이 있는 서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봉헌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이 미사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전국 정평위 등)” 주최로 2016년부터 매년 삼일절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성리 평화미사’

3월 6일(월/14:00) 중국과 북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고 유사시 공격과 방어를 위한 고성능 레이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소성리에서 한반도 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왔습니다.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 + 사제단, 검찰독재 윤정권 퇴진촉구 시국미사

3월 20일(월/19:00)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최한 ‘매국매관 독재정권 윤정권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저버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무력화, 대일 굴욕굴종외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3.11후쿠시마 핵사고 12년, 전국 탈핵행진

3월 11일(토/14:00),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의 교훈을 기억하며, 전국에서 모인 생태.환경단체 회원들이 송상현광장에서 탈핵집회를 열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알리며 서면 천우장까지 행진도 하였습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 2023년 3월 15일)

강영미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2) 권중희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서현 김선영 김  
인한신부 김종경 김진우신부 김진호신부 김형욱 김홍기 나경문 다운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밀알사제단(2) 박위  
옥 박종민신부 박준철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세경 신정금 심서경 심재  
영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병주신부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정  
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장은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근 정종태 정성호신부 정혜원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수련 최영애 최우인 최재경 최정은 최혁신부 하민진 황수엽  
황진 허재현 익명 | **원고 후원** | 김현신부 박보나 차광준신부 최혁신부

##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알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2023 04

# 누가

지하철 투쟁으로 본 장애인 권리

# 죄인인가?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4.17(월) 19:30  
가톨릭센터 3층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미국의 원폭 투하 7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목소리"

증언 : 피폭 1세 이기열 선생님

일시 : 4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 부산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최 : 부산NCC,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책과아이들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마을교회

**4.16세월호 9주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4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에서  
4.16세월호 희생자(304명)와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159명)를 기억합니다.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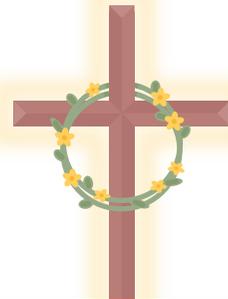
# 더 나은 정치와 사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실수, 부패, 무능 때문에 흔히 정치를 불쾌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경제로 대체하려 하거나, 하나의 이념이나 다른 이념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 형제들』 5장)



- 일 시 2023년 4월 27일 ~ 5월 11일(3주간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3만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수도자 : 2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신청하기 4월 24일까지 <https://url.kr/qlowb9>
- 문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4월 27일	공동선을 위한 정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서울대교구)
5월 4일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유와 민주주의	
5월 11일	정치와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기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cs.co.kr](http://busanjustice.pbcbcs.co.kr)